

The style of life shown by Elder Lee Sang-dong through the encounter between Confucianism and early Protestantism

Kwang Deok Ahn
(Yonggye Presbyterian Church)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testant faith that emerged during the early missionary work of Korean Protestants in the Andong region of Gyeongsang Province, where Confucianism was developed. In the early days of Korean Protestantism (1905-1935), it focused on the life and lifestyle of Elder Lee Sang-dong, a nobleman with a background in Toegye Confucianism, who converted from Confucianism. Elder Sang-dong Lee's life and journey of faith can be illuminated and the implications can be connected through the theology of the faith community by Christian education scholar J. h. Westerhoff III. Westerhoff viewed Christian education as forming the values and worldview of individuals in the community while the faith community adapts to society and culture. Westerhoff's view of Christian education is that these values appear as a way of life within social and cultural processes, and this life helps to reveal various aspects of life based on different environments. As Sang-dong Lee began reading the Bible, he came to believe in Jesus and accepted the worldview of the Bible. The values of the Bible accepted in this way opened up a world view shown by the Christian Bible rather than Confucian Toegye Neo-Confucianism in the encounter between Confucianism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early Protestant church history. Thus, he lived the lifestyle of a believer who put the words of the Bible into practice in the life of a Confucianism nobleman. He founded the Posan-dong Church and started a church with a martyrdom faith community. He was the first in Andong to sing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on his own, advocated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liberated slaves and demonstrated the equality movement, and established new education at DeoksinSeosuk. By implementing it, it faithfully fulfilled its role as a teacher of the enlightenment movement and catechesis. In the early days of Korean Protestantism, Lee Sang-dong, a layman who held the office of elder rather than a minister in an institutional church, is a practical example of the values and lifestyle shown through the encounter between Confucianism and Protestantism in the Andong region, the stronghold of Confucianism. It can be seen as providing deep insight in modern church history and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education.

Key Words

Social believer, Holistic Mission, Professional Missionary,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faith community Education, Elizabeth J. Shepping

이상동 장로가 유교와 초기 개신교 만남으로 보여준 삶의 양식

안광덕*
(용계장로교회)

논문 요약

이 연구는 유교가 발달한 경상도 안동지역에 한국 개신교 초기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개신교 신앙의 특징을 찾고자 하였다. 한국 개신교 초기(1905~1935)에 퇴계 유학의 배경을 가진 양반 이상동 장로가 유학에서 개신교로 개종하면서 나타난 생애와 삶의 양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이상동 장로의 삶을 추적하기 위하여 초기 개신교 역사 자료 등을 찾아 조사하고 비교하였다. 하지만 '조사'로서는 교회에서 짧게 봉사하고, '장로'로 오래 지내면서도 조직 교회의 정식 교역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적 교회 기록이나 문서들을 많이 찾을 수 없었다. 이상동 장로의 생애와 신앙의 여정을 기독교교육학자 웨스터호프(J. h. Westerhoff III)의 신앙공동체 신학을 통해 조명하고 함의를 연결할 수 있다. 웨스터호프는 기독교교육은 신앙공동체가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면서 공동체에 속한 개인의 가치관,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이라 보았다. 웨스터호프가 바라보는 교육은 이러한 가치관이 사회와 문화 과정을 속에서 삶의 양식으로 나타나고 이 삶은 각각 다른 환경에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하였다. 이상동은 성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하여 성서의 세계관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받아들인 성서의 가치관은 한말 유교와 초기 개신교회와 만남에서 유교 퇴계 성리학의 세계관보다는 기독교 성서가 보여주는 세계관으로 회심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명문 양반의 삶에서 성서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인의 삶의 양식을 가졌다. 그는 포산동교회를 설립하여 순교 신앙공동체 뜻을 품고 교회를 시작하였고, 안동에서 가장 먼저 단독으로 3.1 만세를 불러 대한독립운동을 주창하였으며, 노비를 해방하여 평등 운동을 실천하였으며, 덕신서숙을 통한 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계몽운동과 카테케시스 교사의 구실을 충실히 감당하였다. 한국 개신교 초기에 제도 교회의 교역자가 아닌, 장로의 직분을 가졌던 평신도 이상동은 유교의 본거지인 안동 지역에서 유교와 개신교 신앙이 만남으로 보여주는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제시해 준 실천적인 예시며, 이러한 예시는 현대의 교회 역사에서나 기독교 교육의 관점에서 깊은 통찰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 주제어 〉

유교, 이상동, 세계관, 가치관, 삶의양식, 신앙공동체, 3.1만세운동, 계몽운동

I. 들어가는 말

경상도 안동지역은 한국 개신교 초기 선교 역사에서 유교와 관련된 한국 개신교의 특징을 잘 드러내기에 주목할 만하다. 그래서 이 연구는 안동지역의 초기 개신교(1905-1935) 선교에서 유림들의 신앙과 삶에 주목하였다. 안동은 유림의 산실로 유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한국 개신교 초기인 1910년대에 퇴계 유학에 배경을 둔 양반으로서 예수를 믿은 이상동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이상동은 안동의 양반인 고성이씨 가문의 석주 이상룡의 동생으로, 그가 유명 유림 출신으로서 첫 개종자이며 안동 3.1만세운동 단독 시위자다. 한국 개신교 초기의 이상동의 행적을 살펴보면, 한국의 유학과 기독교가 만나면 어떤 모습의 삶이 나올 수 있는지 성찰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상동의 삶의 여정을 추적하기 위하여 초기 개신교 역사 자료를 찾아 조사하고 비교하였다. 하지만 ‘조사’로서 교회에서 짧게 봉사하고, ‘장로’로 오래 지내면서도 제도적 조직 교회의 정식 교역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적 교회 기록이나 문서들을 많이 찾을 수 없다는 점은 이 연구의 제약점이다. 하지만 다행히 그의 아들 이운형이 한문으로 적은 일기가 출판되어 그나마 이상동 생애의 흔적과 활동을 살펴볼 수 있어 그의 신앙의 여정을 추적할 수 있었다.

이상동은 별도로 신학 과정을 거치지 않은 평신도 신앙인으로 교회의 공식 교역자가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생애는 신앙과 일상이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그것이 개인과 사회의 삶을 변형시키는 ‘삶의 양식’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학문적 이론과 교육에 의존하지 않은,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신앙은 교회 역사나 기독교 교육의 측면에서 계속 발견하고 성찰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런 관점에서 그의 생애와 신앙의 여정을 기독교교육학자 웨스터호프(J. h. Westerhoff III)의 신앙공동체 신학을 통해 조명하고 함의를 연결해 볼 수 있다. 웨스터호프는 신앙은 교회공동체의 상호 교류를 통한 사회화와 문화화 속에서 한 개인의 가치관이라 할 수 있는 세계관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웨스터호프가 바라보는 교육은 이러한 사회화와 문화화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삶의 양식’을 형성하고 드러내게 도와주는 것이다. 여기서 웨스터호프는 그의 교육신학 주요 개념인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은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교육의 우선적인 관심이 지적인 기능, 즉 무엇을, 또 무엇에 대하여 아는 가에 목표를 둔 정신활동으로 생각하여 왔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인격이라는 것을 잊었거나 잊은 것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삶의 스타일이란 말은 앞에서 말한 생각과 느낌과 행동이라는 인간 행위의 세 가지 면을 총체적으로 취함과 동시에 한데 묶어 사용한다(웨스터호프, 1978, 80). 그러나 이 말은 우선 영어표현 그대로이고, 그 내용을 우리 말로 삶의 방식, 태도 등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

로 이해하기에는 ‘삶의 양식’이 적절하다고 여겨 이하에서 삶의 스타일을 삶의 양식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이런 웨스트호프의 교육 신학을 통해 초기 한 사람의 독특한 신앙 양식을 찾아보는 것이 한국 교회 교육의 현실과 미래를 진단하고 전망하는데 유비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다.

이상동은 성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서의 세계관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형성한 성서의 세계관은 그 지역과 역사, 즉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확장하게 했다. 그리고 그 세계관에 따른 삶은 명문 양반의 삶의 양식에서 성서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인의 삶의 양식으로 변모하였다. 그는 ‘포산동교회’를 순교신앙 공동체의 관점에서 교회를 설립하였고, 3.1 만세운동으로 민족 독립의 뜻을 선포했으며, ‘덕신서숙’의 교육으로써 계몽운동과 카테케시스 교사의 구실을 충실히 감당했다.

한국 개신교 초기에 제도 교회의 교역자가 아닌, 장로의 직분을 가졌던 평신도 이상동은 유교의 본거지인 안동지역에서 예수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삶의 양식이 변하는 실천적인 예시며, 이러한 예시는 교회 역사에서나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II. 이상동의 생애와 회심

1. 이상동의 생애

이상동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가문과 배경을 알아야 한다. 이상동(李相東)은 1865년 11월 4일 출생하여 1951년 1월7일(86세) 세상을 떠났다. 본관은 고성(固城), 자는 건초(健初)다. 그는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내각제 수반) 석주 이상룡(李相龍, 1858.~1932.)의 동생으로서 1968년 대통령 표창, 1990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독립유공자다. 이상동은 퇴계 영남학파의 마지막 유림으로 양반 가문 출신이다. 그는 3대에 걸쳐 조선시대 명문 양반 가옥으로, 보물 182호로 지정된 ‘임청각’ 본가에서 자랐다. 소위 ‘임청각’ 가문이라 부르는 이상룡의 가문은 이상룡 본인과 동생 이상동·이봉희, 외아들 이준형, 손자 이병화, 조카 이형국, 이운형, 이광민, 당숙 이승화 9명과 을미 의병장군 외삼촌 권세연까지 모두 10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했다. 이런 가문의 가장(家長)인 이상룡의 지도 아래 동생 이상동은 어려서부터 한학과 유교를 공부하였다.

이상동이 자라고 교육받은 가문은 역사적으로 영남의 명문 유림 가문으로서 특별히 혁신 유림의 성격을 이어왔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의 가문은 고려 공민왕의 안동 몽진을 돕고, 조선 개국 공신 영의정 집안이다. 이 가문의 한 선조는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하여 벼슬을 버리고 안동으로 돌아와서 입향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이상동의 맏형 이상룡

은 퇴계의 마지막 영남학파인 정재학파에 속한 혁신 유림이다. 정재학파 유림들은 서양의 세력이 동양에 밀려올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회 상황에서 유학의 현실 대응력을 보면서 유교의 능력에 크게 실망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전통적인 보수 성리학자에서 유교 개혁론자로, 그리고 다시 사회주의자로 변천하여 그 시대의 과제를 대응하였고 다양한 사상적 스펙트럼을 펼쳐 보였다. 먼저 이들은 퇴계 성리학 사상을 바탕으로 조선 후기에 영남 만인 상소운동과 을미년 항일의병운동을 전개하면서 한국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그러나 혁신 유림들은 후에 위정척사운동, 항일의병운동, 계몽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만주로 이민을 가서 경학사를 세우고 부속 신흥강습소를 창설하였고 이것이 후에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하면서 여기에서 훈련된 청년들이 청산리 전투와 같은 항일무장 독립운동을 하였다(김희곤, 2015.11.14.).



[그림 1] 이상동

이상룡은 이미 을미(1895년) 의병운동에 참여한 외삼촌 권세연 안동의병장을 돕기도 하고, 1896년 가야산에서 의병기지를 건설하고자 거금을 들였으며 적극적인 항일의병 전투를 벌였으나 소기의 뜻을 이루진 못하였다. 그 후 이상룡은 영덕 포산동 아래 신돌석의 의병운동을 도와 적극 참여하였지만 결국 그 당시 전반적인 의병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다시 계몽운동과 장래 만주 무장독립운동을 계획하게 된 것이다. 이상동은 이상룡의 항일의병운동에 동참하면서 그리고 신돌석 항일의병장이 벌이는 을사 항일의병(2차)의 봉기(1906. 3.)도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병운동이나 전통적인 유교의 세계관으로는 그 한계가 크

다는 점을 절실히 느끼고 새로운 운동과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을 것이다. 필자는 그것이 이상동이 이상룡 가문의 삶에서 벗어나 새롭게 기독교 복음을 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당시 이상동(41세)은 1906년 4월에 선교사나 조사들이 전도하는 신앙 교리나 교회 전도가 아니라, 안동의 명문 양반 유학자로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서 깨달음으로 즉각 기독교를 믿는 개종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결국 1909년 2월, 이상동은 유교 양반의 삶에서 벗어나는 적극적인 방향에서, 그리고 서양 종교인 기독교가 제사를 폐한다는 이유로 가문 양반들의 압박을 피할 소극적인 목적으로 깊은 산골짜기 포산동으로 이주하였을 것이다. 이상룡의 손부 허은은 1911년 1월 6일 임청각 가문의 종손 이상룡이 만주로 독립운동을 위하여 가문의 50여 가구를 이끌고 망명길에 오를 때, 이상룡은 국내에 남는 동생 이상동에게 제사권을 넘겨주는 것이 마땅하나 동생이 기독교인으로서 제사하지 않는다는 까닭에 당연히 이어야 하는 종손대행권을 이상동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그 대신 이상동의 장자 이형국에게 종손대행권을 넘겨주었다(허은, 1995, 158).

이상룡이 만주로 망명하여 항일무장 독립운동에 전적으로 투신하는 때, 이상동은 그의 형과는 다른 행보를 시작한다. 그는 1910년에 신앙공동체의 형태를 보이는 포산동교회를 설립하였다. 포산동교회는 안동 지역내 최초로 교회들이 설립되는 시기에 같이 설립되어 한국의 초대교회라 할 수 있다. 그는 1913년 11월 20일 아들 이운형과 함께 권찬영(Crothers) 선교사에게 세례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1909년 2월 부친(이상동)을 따라 영양군 석보면 포산동 원기에 우거하니, 을사보호조약 이후에 숨어서 때를 기다릴 목적으로 산에 들어와 부자(이상동과 아들 이운형)가 친히 농사일을 하며 지냈다. 미리 상점한 마가복음서를 연구하며, 농민들에게 전도하고 학문을 가르치며 소일하게 되었다. 가난이 심하여 보리죽과 나무껍질로 연명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이인화·이덕화, 38).

이상동(48세)은 1917년에 기독교 조사(助師)로서 봉사를 시작하였고, 또 포산동교회와 원전교회 연합당회를 통해 장로로 피택을 받았으며, 1919년 3월 13일(54세) 안동에서 3.1만세운동을 단독으로 시위하여 안동 만세운동을 촉발하였다. 그리고 일본 재판국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대문 감옥에서 수감 중에 이원영(후에 목사)을 전도하였다(배홍직, 1975, 88).

이상동은 조사로 봉사하다가 장로 피택을 받았지만 3.1만세운동으로 인한 수감으로 임직을 하지 못하였고, 출옥 후에 장립하였으며 그 후 장로로서 경북노회 총대(1920년)와 경안노회 조직노회(1921년) 총대부터 경안노회 제7회 총대(1925년)까지 시무하였다. 안동 읍내

로 돌아온 이후 그는 다시 경안노회 조사로서 1926년부터 1927년까지 사역하였다. 1928년경 이상동은 안동 법상동 안동교회에 출석하다가 1932년 안동동부교회(당시 신세교회) 설립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안동교회 교인 100여 명과 함께 안동동부교회로 이적하여 장로(1933.6.~1934.12.)로 시무하였다가 안동동부교회가 1942년 6월(제37회 경안노회)에 안동읍 3개 교회를 일제 일본제국주의의 한 마을 한 교회(一面一教會制) 강제 정책으로 안동교회로 합쳐져 신앙 생활하였고 1951년 1월7일(86세)에 삶을 마무리 하였다.

2. 회심 :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

이상동(41세)은 1906년 4월 안동지역 서점에서 마가복음 쪽복음서를 구입하고 임청각 군자청에서 유림들과 독서 토론회 중에 아들 이운형과 함께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서 회심하여 기독교 신앙을 가지며 기독교 세계관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유교가 뿌리 깊은 안동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초기 개신교의 특별한 선교 양상을 보여준다

1906년 어느 날 부친(이상동)은 서점에서 마가복음을 구입하여 매주 화요일 임청각에서 철학을 토론하던, 안동 석학들과 새 진리를 토론하는 중 나(아들 이운형)와 함께 기독교인이 되기로 하나님 부름에 응답하였다. 기독교인이 된 후 문중에서 고립되고 손손대행권도 박탈당하고 고행길을 걸었다(이인숙 · 이덕화, 2006,14).

1,000여년 이상(30代) 이어진 전통 유림 가문의 극심한 반대와 유교 문화와 심한 갈등을 침묵으로 견디며 문중에서 이열되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였다(이인숙 · 이덕화, 30).

시조부님 삼 형제 중에서 둘째분(이상동)이 예수교회 장로였다. 안동에 기독교가 들어오자마자 몇바람에 믿기 시작했다. 그분 둘째 아들(이운형)은 목사가 되어 미국에서 목회자로 생애를 마쳤다. 그 당시 문중은 모두가 유림이어서 반대가 극심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대 변혁이었다. 그 사실은 초기 기독교와 전통 유교와의 갈등을 대표하는 큰 사건이어서 [개벽] 잡지에도 실렸다. 서간도 땅에 앉아서 나도 그 책을 읽었다(허은, 157).

이상동의 회심 기록을 조합해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한다. 특별히 그는 홀로 성경읽기와 연구, 특히 마가복음서를 읽고 연구하고 성찰하며 기독교 복음을 접하여 회심하였다. 분명한 점은, 이상동은 미국 선교사들의 교리 전도나 권면 그리고 당시 시작한 교회나 제도종교(institutional religion)의 전도나 교회의 종교현상(신유, 예언, 현세구복 등)을 접하지 않은 상태로 기독교를 만난 것이 독특하다. 제도 종교의 교리나 종교 현상을 접하기 전에도 사람

이 성경을 직접 읽음만으로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뚜렷이 보여 준다. 성경 자체 말씀의 권위가 매우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동은 당시 안동지역에 많이 배포된 이수정 역 마가복음서로 추정되는 쪽복음서를 스스로 강독한 이후에 개종하였다.

마가복음서는 유대 전쟁(A.D. 66-73)의 여진이 아직 가시지 않은 70년대에 처음으로 예수의 죽음과 성전의 파괴를 결부시켜 예수 생애를 완성 시켜 기록한 최초의 완결 문서로 아주 간단하다. 비록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빈약하고 기적, 치유, 등 설화가 지나치게 많지만(맥, 1993, 25), 마가복음에는 유대 전쟁의 의미에 관해서 성전 파괴야말로 유대인에게 마땅한 재난이라고 생각, 곧 그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응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여 성전을 파괴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는 생각에 예수가 그들의 종교, 율법, 제도적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여 받은 십자가형은 예수를 처치하려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음모라는 것이 마가복음에 잘 나타난다(맥, 231). 이상동에게 1905년 을사보호조약 속에 일본의 강제 침략에 대한 조선 왕조와 통치 이념인 유학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을 즈음에 마가복음에 드러나 예수 십자가와 처형당한 생애와 그가 행하신 설화는 큰 감명을 주었을 것이다.

이상동은 마가복음으로 읽고 개종한 이후에 유학자로서 한문에 매우 익숙하므로 나중에는 주로 한문 성경전서를 읽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가 안동 3.1만세 단독 시위 후 일본 경찰에 붙잡혀 압송되는 차 위에서 “상제(上帝)의 가호로 한국은 순일(旬日, 열흘)을 지나지 않아 독립할 것이고, 지금 (나는) 감옥에 들어가지만 출옥할 날이 가깝다”고 하며 만세를 멈추지 않았다(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173-174). 그 당시 ‘하나님’ 용어가 여러 호칭으로 번역되었는데, 일본 출판 성경에는 가미(神)로, 가톨릭 한글 번역 성경은 천주(天主)로, 천주교가 중국에서 발간한 한문 성경에는 상제(上帝)로 번역되었다. 조선 유학자들은 언문(우리글)이나 국한혼용체보다는 한문으로 일기나 시를 능히 쓸 정도로 한문이 익숙하였기에 실제로 한문 성경 읽기가 더 편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관점에서 이상동은 하나님을 ‘상제’로 호칭했다고 본다.

안동지역의 기독교 특징은 ‘성경 기독교’라 할 수 있다. 임희국 역사신학자는 “성경 기독교의 형성은 본래 이 지역의 문화 유산인 경전 공부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즉 유교 주자학 경전을 숙독해 오던 정신 유산이 교회 안에 -그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새로운 형태로 서서히 정착되어 감을 살펴볼 수 있다(임희국, 2008, 97). 김광현 초기 안동교회 목사는 ‘유학의 고장에서 기독교가 성한 까닭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장로교회의 윤리관이 유교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초기 설교들이 유교 경전에 관한 강론인지 기독교 설교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교 경전 내용이 투영되어 있었다”라고 하였다(임재해 편, 1997, 351). 안

동 지역의 선비들은 성경을 통해 기독교를 접하면서 이것이 그들의 신앙을 돈독하게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개신교 초기의 신앙은 이같이 성경 문서를 중심으로 전파되었다. 한국 가톨릭도 기독교 문서를 통해 신앙을 소개받고 개종이 일어났다. 조선 중기 실학자 성호 이익 문하의 이벽이 천진암에서 천주교 서적 강화를 주도하고 천주교회를 태동시켰다. 그리고 성호학파 홍유한이 유교의 증흥지 영주 순흥에서 ‘천주실의’와 ‘칠극’을 스스로 강독하면서, 가톨릭 첫 세례자 이승훈보다 10년 앞서 세례도 받지 못하고 자생적인 천주교 수덕자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 후손이 13인 순교성인이나 배출되었다. 기독교 역사학자 이만열은 “한국 기독교의 성격을 규명할 때, 선교사들은 한국 개신교가 특별히 성경을 사랑하는(Bible-loving Christian) 그리스도인 혹은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Bible lovers)이라 하였다.”(이만열, 2023, 88). 이런 관점에서 이상동도 조선 유학자로서 성경 문서를 통하여 한국 개신교 초기의 복음 터전을 일구어 간 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役事)라 할 수 있다. 성경은 성경 본문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는 통로요 계기가 됨을 확실히 보여준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서 읽기의 교육 효과는 여러 곳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성서 읽기는 하나님의 뜻을 잘 들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성서는 전 인류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는 통로라고 하였다. 성서는 마디마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말씀으로 계시하신다(본회퍼, 1994, 65). 그래서 본회퍼는 성서를 차례로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며, 그 내용에 대한 마음의 태도는 꾸밈없이 솔직하고 겸허하게 준비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본회퍼, 71).

전체로서 성서는 하나님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서는 그 끝없는 내적인 관련에서 비로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증언으로써 이해되는 것입니다. 성서의 책들을 계속해서 읽는 사람들은 들을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단 한번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바로 그 곳으로 휘몰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서를 읽을 때에야말로 성서의 역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되며,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찌기 일어난 그 사건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행하신 거룩한 행위, 곧 지상에서 이룩한 그리스도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본회퍼, 69).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경을 읽음은 성경이 직접적인 교육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성경의 말씀을 직접 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주고 보여준다는 것이다. 함석헌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모세 이야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를 있으려 하여서, 있으려 하는 자”라고 표현하여 성서의 하나님은 자발성을 가진 능동자임을 드러내었다고 하였다(함석헌, 2023, 125). 여기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스스로 있는 자’라는 정태적 해석을 지양하고, 두 번이나 “있으려 하여서, 있으려 하는 이”라고 표현한 함석헌의 번역은 하나님이 자신의 능동성, 역사성, 창조성을 아주 강조하여 드러내고자 뜻하는 바를 잘 보여 준다(이은선, 2023, 25). 이는 결국 하나님은 자유한 유일신으로서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만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경을 읽는 자는 스스로 그 무엇에 간접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한 유일자로서 성경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능동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맞이하여 큰 만남을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능동자’이며, ‘있으려 하여 있으신 하나님’의 본성은 퇴계의 유학 이론에서도 연결될 수 있다.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의 유학이 지닌 독특한 특징은 리(理)를 근원적 운동자(能發能動)일 뿐만 아니라 만물에 운동을 부여하는 명물자(命物者)로서 힘을 지녔다고 보는 것이다.

문인(門人) 이덕홍(李德弘)이 “리(理)라는 것은 형이상의 도며, 생물의 근본이다”는 말의 뜻을 묻자, 퇴계는 “주자의 무극이면서 태극임을 가르친 말에 하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지마는 실로 이것은 조화의 근본이며 만물의 뿌리라고 하였다. 대체로 리(理)는 비록 형상은 없지만 지극히 빈 가운데 지극히 참된 본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1은 2를 낳고 2는 4를 낳으며, 4는 8을 낳고 8은 16을 낳으며, 16은 32를 낳고 32는 64를 낳았으니, 이것이 생물의 근본이며 만물의 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정순목, 1986, 41).

중국 주자학의 창시자인 주자(朱子)가 주장한 이기동정론(理氣動靜論)과는 다르게, 퇴계는 동정(動靜)에 머무는 이(理)가 아니라 동정(動靜)하게 하는 능력자(所以然)로서 리(理)를 강조하였다. 이것이 중국의 주자학을 초극하고 발전시켜서, 퇴계 유학이 한국의 독창적인 철학으로 거듭나게 된 점이다(정순목, 1986, 41). 퇴계 유학에서 리(理)는 물(物)의 주, 다시 말하면 만물(萬物)을 만물(萬物)되게 하는 근본자, 명령자의 성격이라는 리(理)를 받아 들어서, 그 리(理)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신다면 유학과 기독교는 훨씬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서로 이해하고 각기 자신의 세계와 사상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러한 면에서 퇴계 유학은 종교성을 지니며 종교철학의 성격을 내재한다고 본다. 그래서 리(理)는 신성성, 종교성을 지닐 수 있으며, 리(理)는 존재론의 실체인 동시에 도덕 실체라 할 수 있다. 퇴계는 이같이 리발성(理發性)을 주장한 것은 리(理)의 보편성, 능동성이 결국 그의 실천 윤리의 당위 개념인 천리(天理)·도심(道心)·사단(四端)·본연지성(本然之性) 등을 정당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유학에 익숙한 이상동은 이러한 퇴계 유학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신앙을

받아들여 접목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퇴계 유학자인 이상동은 일제의 강제 합병기 민족의 고난 현장에서 성서를 보았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잘 보았을 것이다. 성서는 백성들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그 백성의 고난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낸 책이다. 그래서 민중들이 고난의 삶에서 성서를 읽는다면, 성서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성서에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한 아가페 사랑을 엮어 가신 역사가 그려져 있다. 그래서 성서에서 보이는 핵심 축을 찾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그 백성을 해방시킨 구원의 뜻이 성서에 드러나 있음을 알고 오직 계명과 말씀을 신앙의 핵심으로 여기며 그만큼 계명을 읽고 순종하기를 강조한 것이다. 이같은 민중 해방사건으로 성서의 핵심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난받는 삶의 자리에 처해 있는 백성들이 스스로 가지는 시각과 실천을 매개로 하는, 민중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은 스스로 뜻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상동은 일본의 강제 병합기 고난의 역사 상황에서 성경을 읽음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며 회심하는 인격의 결단을 내렸다. 그렇다면 이상동이 신앙을 받아들임으로써 무엇을 얻은 것일까? 그것은 성서가 보여주는 세계관을 받아들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랜 기간의 훈련과 교육을 받거나 먼저 믿은 다른 교역자나 교인의 권면과 전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직접 대면함으로써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점이 이상동의 독특한 점이다. 이와같이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다는 것은 성서의 세계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웨스터호프(J. H. Westerhof III)의 기독교교육 신학으로 이상동 장로의 신앙과 삶을 살펴 본다. 장신근은 기독교교육은 실천신학에 속하므로 다음 세 가지 유형 - 비판적 상관관계 유형(쉐릴, 힐트너, 브라우닝), 해석학적 유형(그룹, 거킨), 신앙공동체 형성 유형(웨스터호프, 켈벨)- 가운데 하나의 유형에 속한다고 보았다. 곧 웨스터호프는 기독교교육을 ‘신앙공동체’ 혹은 ‘종교사회화/신앙문화화’ 유형으로 이해하였다. 이 유형은 기독교의 신앙생태계가 상실되어가는 1960년대 미국의 상황에서 기독교가 신앙공동체를 통하여 신앙을 양육해야 한다는 방향을 가리키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신앙공동체인 회중의 맥락에서 모든 세대가 성서의 이야기, 예전, 삶의 경험 등을 공유하면서 신앙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회학교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도전 앞에서 교사에 의한 일방적인 가르침 위주의 제도화된 학교식-교수 패러다임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에 실패하였고 신앙교육의 핵심인 인격적이고 공동체적인 특성을 놓쳐버린 결과 젊은 세대가 많이 교회와 신앙을 떠나버리게 하는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환경에서 문제의 본질은 학교식-교수 패러다임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

안한 것이 바로 ‘신앙-문화화 공동체의 패러다임’(community of faith-enculturation paradigm) 또는 ‘종교 사회화’(religious socialization)다. 넓은 의미에서 ‘신앙공동체 이론’이라고 불리는 이 모델은 신앙이란 개인적인 교수를 통하여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신실한 신앙공동체 안에서 예배의식, 경험, 행동 등을 통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가운데, 즉 문화나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면화가 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그래서 명시적 커리큘럼보다는 잠재적 커리큘럼을 더욱 중요하게 간주한다(장신근, 2023, 36). 웨스터호프는 기독교교육도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교육의 한 분야이며, 이 교육은 문화유산의 전달이며 인간들이 그 문화를 통과하는 과정이라 말한다. 종교는 모든 문화의 핵심 중의 하나다. 어느 문화도 종교를 가지지 않고 존속되지는 않는다. 인간의 기본 요구 중의 하나는 우주와 자연계를 이해하고 그것과의 관계를 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피조물이 경험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종교심에 대한 요구가 기아와 갈증만큼이나 깊은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종교심에 대한 표현은 중요하다. 그것은 인간에게 세계를 보는 눈과 그 세계 안에서의 그의 위치를 알게 하는 이해력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종교는 그가 가진 문화의 한 부분으로 학습된다. 이 종교가 학습되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문화와 함께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웨스터호프, 1978, 6).

웨스터호프는 기독교신앙을 신앙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상호관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을 고려하여 이를 ‘문화화’(enculturation)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문화화는 사회화(Socialization)와 구별하여,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삶의 방식을 터득하고, 유지하고, 변혁하고, 또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상호적 경험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다(웨스터호프, 1983, 79-80). 따라서 문화화에서는 작용하는 자와 작용 받는 자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양자 간에 함께 활동하는 자로서 함께 상대에게 응답하게 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대등한 양자 사이의 대화 관계를 강조하게 된다. 그래서 중요하다.

웨스터호프는 기독교교육을 이런 문화 속에서 사람을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수단이라고 정의한다.

초기 히브리인들은 교육을 도덕으로 이해했다. 도덕은 선한 사람을 형성하는 것으로써 선한 사람이란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그 옳은 것을 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며, 그럼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가 가지는 신념 중의 하나는 교육의 목적이 본래적인 도덕과 구원을 보증하는 것인데, 여기서 구원이란 인간의 전체성, 건강한 자아와 이웃 그리고 하나님과의 합일성을 뜻한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한 성품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웨스터호프, 1978, 68).

기독교 교육의 핵심 목적인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순례자로서 세상을 방랑할 자유를 얻는 것을 뜻한다. 구원과 자유는 아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자유한 사람의 모습은 순례자로서 그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그 자신의 노력에다 인간을 통하여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그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한 자유의 결과는 새 세계의 비전을 가진 나그네와 이방인으로서 세상에서 모험할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구원은 신앙과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고, 그 관점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설 자리를 안다. 신앙을 세계관과 가치체계로서 이해한다는 말이다(웨스터호프, 1978, 69).

신앙이란 한 사람이 세계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문제로써, 그 세계를 보는 눈을 통해 과거를 이해하며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받는 것이다. 신앙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이며, 그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계와 연관 맺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으로서 신앙은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웨스터호프, 1978, 95).

신앙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성서의 세계관을 회심과 가치체계로서 이해한다는 것으로 신앙은 세계관을 이루게 한다. 기독교의 교육은 인간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의 의지를 서로 나누는 과정이 되어서, 개인이 기독교 삶의 스타일을 터득하게 되어, 자기 자신의 참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웨스터호프, 1970, 29).

그러므로 교육의 과정은 기독교 교육으로 개인이 삶을 보는 눈을 가지며 그래서 일정한 삶의 스타일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달하며 양육하고 발전시키는 사회화 과정으로 본다(웨스터호프, 1970, 70).

성서의 세계관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곧 성서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한다. 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께서 드러내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나타난 가난한 자를 자유롭게 하여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복음인 아버지의 뜻을 성서를 통하여 알게 되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겠다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며, 이 믿음의 결과를 구원이라 한다. 이렇게 신앙을 이해한다면 믿음은 곧 삶의 양식을 형성하게 된다. 개인이 처한 사회 환경이 각기 다르기에 이 믿음은 좀 더 구체적인 삶의 양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의 조건과 형편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뜻을 받아들인 믿음은 큰 공통점과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함석헌은 이러한 흔적은 과학자가 현상을 분석한 법칙이 아니라,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결과로 볼 때에 이를 역사라고 하였다.

역사는 하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라는 그 하나(一)라고 볼 수 있다. 이 하나인 것이 있어서 늘 끊임없는 생명의 유전상(流轉相)을 보게 되는 것이다. 세계사가 이미 뜻을 가진 것이 라면, 그는 행동적이지 않을 수 없고, 행동적인 것이라면 그 주체는 인격적인 자(者)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역사는 하나의 능산적(能産的)인 인격을 가진 존재자가 배후에서 진행하는 역사다. 인격의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하시므로 우리는 고난의 역사를 산다. 아가페란 죽음으로써 오히려 사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고난에 의하여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행하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길이다. 티끌에서 영(靈)에, 자연 신관에서 인격 신관에, 본능 생활에서 신적 생활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곧 고난의 뜻을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된다. 고난은 못나서 당하는 줄 알았는데, 절대자의 어떤 뜻이 있어서 당하는 거라면, 그 뜻의 부름에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성서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 고난의 역사를 따라 사는 삶이 된다(함석헌, 2023, 26-29).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의 말씀 기반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성서의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 필자는 이 하나님의 뜻을 식물 품종의 씨앗, 곧 하나님의 영(靈)이요 정신이라 여긴다. 씨앗은 생명이므로 당연히 자라면서 나중에 식물의 품종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을 가진 씨을(民)이다. 함석헌은 “씨을이 품는 생명은 항상 보다 높은 자유로 향하여 나가지 않았던가? 자유하는 의지가 있어서만 참 정신인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생명의 근본 원리는 스스로(自) 그러함(然)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는(自由) 정신(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그 세계도 스스로 하는 생명에 이르기를 바란다. 알(卵)에서 깨어나 더 큰 자유로 나아가는 일, 인간적으로 인격의 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 하였다(함석헌, 1950, 60). 이 세계관이라는 씨앗이 자라나 다양한 품종, 다양한 ‘삶의 양식’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양육을 통해 얻어지는 경험과 회심을 통하여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교육이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웨스터호프는 이 둘이 모두 필요하지만, 제도적인 종교(institutional religion)는 양육은 할 수 있어도, 성숙한 기독교 신앙은 양육만으로 형성할 수 없기에 본질적으로 회심을 요청한다고 하였다(웨스트호프, 1975, 146).

전통적인 기독교 교육에서 회심과 양육은 핵심적인 요소다. 기독교교육학자 김민호는 회심을 구분하여 종교심리학 분류에 따라 위기적 회심과 점진적 회심으로 나누었다. 그는 위기적 회심을 급진적 회심이라고도 하며, 이 회심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형태로서 특히 부흥회나 전도집회에서 강조되어 대부분 보수주의 교파에서 강조해 온 유형의 회심이라고 이

해하였다. 이에 반해 점진적 회심은 급격한 회심을 경험하지 않고도, 이전 삶의 양식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지향하는 이들로부터 발견되는데, 오랫동안 가져온 종교적 신념이나 확신에 회의를 품기 시작한 이들이 시간이 지나며 지적 차원의 깨달음을 통해 결정적 전환에 이르는 종교적 경험이라 하였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회심이든 지적 차원의 깨달음으로 인해 결정적 전환에 이르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변화가 회심의 본질이기에 교육은 세계관 전환이라는 면에서 기독교교육은 회심을 강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김민호, 2023, 243). 웨스터호프도 궁극에 이르는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하여는 고백신앙에 이를 때까지 진정한 회심을 이루도록 교육할 것을 주장한다.

웨스터호프는 신앙의 유형을 경험신앙(experienced faith), 귀속신앙(affiliative faith), 탐구신앙(searching faith), 고백신앙(owned faith) 유형으로 나누어 최종 단계인 고백신앙 유형으로 나아갈 때에야 성숙한 신앙에 이른다고 하였다. 이러한 고백 신앙을 체득한 사람은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신앙을 증거하고자 애쓰며, 아울러 세상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의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제거하고자 철저하게 노력한다. 고백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해방, 완전 생활, 정신적 건강, 자기정체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생활을 세상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책임을 다함으로써 복음의 요구에 응답하게 되는 것이다(웨스터호프, 1976, 92-93).

웨스터호프는 회심을 일반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말로 이해하기 보다는, 기본 신앙의 단계에서 고백 신앙의 단계로 변화는 과정을 회심이라고 하며, 그 회심이 경험되는 방법(현상)은 매우 다양하게-급격하거나 점진적, 극적이거나 일상적, 감정적이거나 지적인 방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한 사람의 사고·감정·의지에 나타나는 전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회심으로 고백신앙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상황 과제에서 그 과제를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변혁적인 삶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회심은 성숙한 기독교인의 삶을 뜻하는 것으로 정치·사회·경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한다(웨스터호프, 1976, 22).

이상동은 유림 선비(士)다. 함석헌은 선비(士)는 마음(心)을 모으면 하나님의 뜻(志)을 아는데 매우 유익하다고 하였다. 그 선비(士)란 열(十)에서 하나를 보고, 하나(一)에서 다시 열(十)을 보는 뛰어난 통찰과 통섭, 통일의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된다고 하였다(이은선, 2023, 30). 이상동은 선비의 마음을 지녔기에 하나님의 뜻을 성서를 통해 잘 간파하는데 유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받아 들이고 다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양식을 보여 준 것이다. 이상동은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맞추어 삶의 양식을 보여주었다.

III. 이상동이 보여준 ‘삶의 양식’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대행자, 역사적인 행위자이기에 우리의 삶의 양식은 사고와 느낌과 행동의 총체여야 한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정신을 이어받은 존재로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총체적으로 활동하도록 창조되었다. 이상동은 1910년~1920년대 한국 개신교 초기 사회적 상황에서 다음에 나타나는 삶의 양식을 보여준다.

1. 순교 신앙공동체로서 포산동교회

신앙이란 신앙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터득된 세계관·가치체계를 역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 속에서 개혁·발전시켜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행동까지를 모두 포함할 때, 비로소 신앙으로 존재할 수 있다(웨스터호프, 1976, 89). 그러므로 이러한 세계관·가치체계를 터득하고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앙공동체의 삶 속에서 참여하여 상호작용을 하는 종교사회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웨스터호프, 1970, 30). 사람의 모든 신념과 감정과 행동은 신앙에서 비롯되며 이 신앙은 삶의 경험에서 생겨난다. 그러면 이러한 신앙이 형성되는 현장은 어디인가? 그 교육의 장(場)은 삶의 양식을 전해받고 전달하는 종교사회화가 일어나는 신앙공동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 속에 있는 개신교의 신앙공동체와 교회의 모습은 기존 유학에 익숙한 이상동에게 낯설면서도 도전적이었을 것이다. 조선 유교의 세계관은 당시 근대화의 세계 풍조를 대처하기에 너무 미약했다. 혈연이나 지역의 결합을 강조하는 유림의 가문이나 가족공동체라는 개념은 당시 급변하는 세상을 열린 눈으로 바라보고 실천으로 헤쳐 나가기에는 너무 소극적이고 근시안적이어서 힘이 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다. 이상동은 이런 시기에 강력한 기독교의 초기 개신교들의 교회와 신앙공동체를 보았으며 이런 배경에서 포산동의 천주교 순교 성지는 그의 마음에 큰 자극을 주었을 것이다.

이상동은 1909년 2월 영양군 포산동으로 이사를 하였다. 이상동이 이주한 주소지는 일본 제국의 조선총독부 대구북심법원 판결문에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동 104번지’이다. 그리고 그는 이듬해인 1910년에 이곳에 개신교 선교 초기에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웠다. 이 포산동은 태백산맥 동쪽 끝 첩첩산중 600미터 고지에 위치한 구름지 습지로 조선시대 포졸이나 일본 군인들이 찾기가 힘든 곳이었다. 이 지역에 그는 ‘포산교회’를 설립하였다. 포산교회에 대한 기록은 <표 1>과 같다.

〈표 1〉 포산동교회의 기록

연 도	교회 설립 내용	사 료
1910년	영양군 [포산동교회]가 성립, 선시에 조병우, 안석종 등이 이상동의 발론을 시인하여 신도하고, 이상동 가(家)에서 예배하니 원입자가 70여 명이더라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상),302.
1911년	영덕 황장동 흘무골교회 성립하다. 선시에 정순용 형제가 신주하고, 후에 김주일 형제와 이석산 전가(奎家)가 귀도하여 낙평, 포산양 교회를 왕래 예배하며 교회를 창설하니라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상),305.
1911년	영덕군 원전교회가 성립하다. 선시에 화장동 흘무골 거주 정순용의 형제가 신교하고, 그 후 이석산 전가 귀도하여 교회를 성립하니라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상),307.
1909년경	석보면 포산교회는 안석종이 영덕 시장에 가서 전도를 받고 처남인 조병우와 함께 이상동 조사(임시정부 국무령 이상룡의 실제(實弟)로 더불어 1909년경에 설립하였다. 이 포산교회서 영덕 황장동의 흘무골교회, 원전교회 등이 분립되었다.	경안노회70년사, 105.
(이운형 회고)	장항 거주 조병우 안석종, 안영종 제씨를 전도하여 낙평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여, 여러 친우가 포산동에 이미 설립된 포산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니 부친(이상동)의 전력하신 공이 많았다.	이인화·이덕화 편, 2006, 39.
1919년	포도산교회(포상동교회) 교인 증가로 예배당 신축 보고함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하),222.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동 104번지는 예전 딸밭골(속곡)이라 불리는, 현재 가톨릭 순교 교우촌으로 머루성지 안에 속한다. 이상동이 이 포산동으로 이주하여, 여기에 교회 공동체를 이룬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그가 이곳에 교회를 세운 동기는, 교회는 순교 신앙을 각오하는 신앙공동체여야 한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여긴다. 포산동은 포도(머루)산 아래 구릉지대 습지로 임진왜란 때부터 피난지로, 고난받는 이들이 이곳으로 환난을 피해 왔던 곳이다. 그는 오래 전부터 이곳을 드나들면서 포산동 피난처가 기독교의 순교 신앙지였음을 마음에 담아 두었을 것이다.

순교 신앙지가 된 연유는 조선 초기 가톨릭 박해 역사와 관련이 있다. 조선 중기에 주로 성호 이익의 실학파와 연결된 천주교도들이 조상 제사를 폐하고 조상 위패를 불사른다(廢祭焚主)는 이유로 조선의 노론 정치가들로부터 남인 학파들이 정치적 공격 대상이 되어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1801년 신유박해 때는 이벽, 이가환, 정약종이 사형을 당하고 정약용, 정약전은 유배를 갔다. 이 박해 시기에 천주교도들 300명이나 죽었으며 이 환난을 피하고자 충청도에서 33명의 교우들이 태백산 동쪽 자락 포산동으로 피난을 와서 산지를 개간하

여 농사를 짓고 다래와 머루를 따먹으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난 교우촌을 이루었다. 1815년 을유박해가 이곳에 미치어 교우들이 대구 감영으로 붙잡혀 갔다. 가톨릭 일성록(日省錄)에 따르면, 박사행 등 20명은 배교하여 석방되었고 결국 13명이 옥사하였다. 그래서 이곳은 김시우, 이사임 2인은 한국 103인 복자에 시성되는 등 순교의 피가 묻힌 신앙촌이 되었다(안동천주교구, 2023.10.10.).

이 장소는 13명의 가톨릭 교우들이 순교 옥사하여 폐촌된 지 90년이 지난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 비분강개한 신돌석 의병장이 영릉의병 전투를 치를 때, 이상룡이 가야산 의병창립(1907년)에 실패한 후 신돌석 영덕 항일의병전투를 적극 도와 참여하면서, 동생 이상동이 신돌석 의병이 포진하고 있는 석보 원구 진지에 왕래하게 되어 이 포산동을 알았을 것으로 본다. 포산동 산상에는 신돌석 의병장 부인과 며느리의 묘소가 있다. 포산동 전적지와 묘곡, 대동 전적지는 신돌석 의병장의 고향(영해) 위쪽에 있다.

1906년 4월 신돌석이 의병을 일으킨 이후 영덕 의진은 울진, 평해, 영양, 영덕, 청송 등을 의병군의 중심지로 삼았다. 의병들이 관아를 공격하고 군수물자를 확보하고 병력도 키워가면서 일시적인 휴식이나 훈련도 필요했다. 포산동과 묘곡, 대동 전적지는 며칠이라도 안정되면 몸을 추스르고 옷도 갈아 입고 병자도 돌보고 그렇게 하기 위한 주둔지와 훈련장으로 적합했다. 이곳은 적의 공격을 피해 며칠 동안이라도 쉴 수 있으면서 식량과 전투 자원의 공급이 가능한 곳이다. 그 대표적인 곳 제1주둔지가 묘곡면 대동(현재 영해면 대리)이다. 그리고 묘곡 저수지는 신돌석 생가에서 6킬로 정도, 방진에서 삼거리 남쪽 배목 고개가 포산동 아래 삼의 계곡에 가깝다. 이 지역은 좁은 입구 덕분에 적을 방어하기에 좋고 유사시에 남북으로 빠져 나가면서 협소하고 깊은 골짜기여서 적을 따돌리기에 좋다. 또 다급할 때는 빠질 수 있는 토끼길도 있다. 실제로 배목고개에 가면, 고갯길을 내려다 보며 서 있는 산이 포대산(포산동 치정)이라 부르는데, 주민들은 한결같이 신돌석 부대가 그곳에서 포를 쏘았다고 말한다. 또 바로 그 아래에 신돌석의 부하로 이름난 신태종의 묘가 자리잡고 있다(김희곤, 2001, 108).

포산동 머루성지는 천주교가 박해를 받으며 순교한 피가 배인 마을이다. 이는 초기 기독교의 카타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카타콤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시대 박해에 폭압을 피하는 피난처였으며, 숨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전을 행할 수 있었던 교회였고, ‘피의 시대’에 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당한 장소였다. 그들은 이같은 순교의 시대에 300여년 동안 콜로세움에서 맹수에게 살과 뼈를 찢기면서도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유지하였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면서, 장구한 세월동안 박해받던 초대 카타콤의 교회는 무덤 밖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기 동안 ‘익투스’라는 암호를 통해 서로 기독교인임을 확인하며 박해를 견뎠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함께 떡

과 잔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신령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망 권세까지도 이길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마라나타 종말 신앙을 가지게 되었으며, 고난 속에서도 참된 자유와 평화를 맛보면서 교회를 이루어 간 것이다(아브라함, 2014.).

박해와 순교의 길을 갔던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으면서 순전하게 죽음에 이르는 길로 간 것이 오히려 복음을 활발하게 펼치게 된 신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비폭력적 대응 가운데 순교가 오히려 교회의 선교를 증거하는 핵심이 되었다고 하였다(Driver, 2010, 23-27). 터툴리아누스(Tertullianus, 약155-230)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고 말하여 이런 상황을 증언한다.

함석헌은 “종교는 핍박 때문에 발전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이긴 것은 카타콤을 그 본영으로 삼고 싸웠기 때문이었다. 참 종교가 자라는 것은 도리어 핍박 아래서다”(함석헌, 1974, 372)라고 하였다. 크라이더(Alan Kreider)는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국가체제 이전의 초기 기독교는 실질적으로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성장했다고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공동체는 그렇게 살도록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았기 때문이다. 교회는 260년부터 303년 사이의 발레리안(Valerian) 황제의 박해 이후에 예상과는 달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또 303~312년의 디오클레티우스 황제 때의 대환란(The Great Persecution)이라 할만큼 무섭고 치명적인 탄압을 받은 것은 로마 제국이 보기에 보잘 것 없는 이교도들을 감히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필사적인 탄압을 하여 그 세력을 억제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탄압이 오히려 ‘기독교의 승리’(The Triumph of Christianity)를 가져 온 것은 역설적인 힘이라고 말하였다(Kreider, 2019, 98).

이러한 초대 기독교의 카타콤 순교신앙이 배어있는 공동체교회의 정신은 본회퍼가 독일 나치스의 탄압에 항거하는 시기에는 제자공동체와 수도정신으로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독일 칭스터(zingst)지역의 농장 은신처에 핑켄발데(Finkenwalde) 수도원을 세우면서 교회가 고난과 책임을 감당하는 제자공동체가 되기를 강조하였다.

본회퍼가 이 핑켄발데에서 저술한 『제자도』와 『나를 따르라』에서, 세상과 대결하는 제자공동체의 삶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대결은 단순히 세상 그 자체와 싸우는 대결이 아니라 죄의 악한 힘에 사로잡힌 세상과 싸우는 대결이라고 하였다. 교회공동체가 겨루는 세상과의 싸움은 세상으로부터 도피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죄의 마성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기 위해 벌이는 싸움이다. 즉 그 싸움은 세상과의 단절이나 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을 위한 싸움이다(고재길, 2013, 122).

본회퍼는 1935년 9월 6일 옛 프러시아 연합개신교회 협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핑켄발데

신학원 안에 형제의 집을 설립하는 목적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은둔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목회를 위한 준비에 내적으로 집중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는 고난을 각오한 교회공동체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마 5:10)'을 피하지 않는다고 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고난에 대해 공감하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제자들은 곧 타자를 위하는 예언자 삶을 사는 것이 교회공동체 안에서 형성된다고 하였다(고재길, 2013, 130).

필자는 이상동이 포산동으로 가서 교회를 설립한 것은 이같은 가톨릭의 순교신앙 교우촌의 정신과 얼을 이어 가는 것이 개신교 교회가 가야할 길이라고 믿고 포산동교회를 시작했다고 본다. 이상동은 교회사의 초대교회 박해 역사를 몰랐지만 천주교도들이 신앙박해 가운데서 순교할 수 있는 정신과 힘은 퇴계의 유학을 따르는 유림보다 크고 강하다고 여겼다고 본다.

이상동이 지닌 유학의 세계관은 퇴계의 '경(敬)' 사상이다. 퇴계는 사회의 정신적 가치와 수행과 도덕을 실천하는 것을 경(敬)이라 하였다. 경(敬)을 실천하는 것은 수신·제가뿐 아니라 사회와 세계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평화의 원리가 된다. 퇴계는 마음(心)의 원리와 작용을 밝히는 심성론(心性論)과 경(敬)의 실천을 통해 성학(聖學)에 이르고자 하는 수행체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경(敬) 사상의 특징은 나와 너와의 상호 관계성에서 공경하고 배려하여 보편적으로 실천하는 윤리다. 퇴계의 경 사상이 잘 드러나는 것은 '성학십도'다. 성학십도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로 퇴계는 왕 한 사람의 마음의 징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왕이 마음가짐을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삼가는 경(敬)의 내면화를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이상동은 한 나라의 윤리와 명운을 왕이나 귀족들, 양반층에 기대하는 유학 사상의 한계를 보면서 못 백성이 함께하는 새로운 사상과 세계관을 찾았을 것으로 여긴다. 필자는 이상동이 이러한 퇴계 유학의 윤리와 세계관이 혁신적으로 개혁되거나 차라리 종교로서 유교가 변혁되어야 할 문제점을 분명히 깨달았다고 본다. 이런 점을 인식하였을 때에 이상동은 기독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순교 신앙은 그에게 강력하고 영적인 충격을 주어서, 기독교 신앙공동체에 희망을 가졌을 것이며 그래서 포산동 지역에서 이주하여 교회 설립을 할 수 있었다고 여긴다.

2. 3.1만세 운동과 평천하(平天下)

1) 3.1만세운동 안동 단독 시위

이상동은 개신교 조사로서 1919년에 3월 13일 안동지역 첫 만세운동자가 되었다. 1919. 4. 20. 일본재판국 대구복심법원의 이상동 판결문에서 야소교 조수(助手) 이상동(55세)은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구한국의 병합에 반대하여 조선 독립을 희망하는 자기의 의견을 대중 앞에서 표현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흰전(喧傳)하게 하여 본받게 할 목적으로 압수 제2호의 원고를 초고로 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금에 인심과 천의(天意)를 명백하게 표시할 정당한 기회다. 우리 동포들은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생활을 하니 눈을 들어 독립 대한민국 국기를 보아라.’ 운운의 격문 1매(압수 2호)를 작성하였다. 또한 구한국 태극기를 모방한 종이 깃발 1매를 만들어 이를 대한독립만세라는 제목으로 하고(압수 제1호), 위 격문을 시장에 붙이기 위해 종이 깃발과 함께 이를 휴대하고, 대정 8년(1919년) 3월 13일 장날에, 경상북도 안동군 안동 읍내 시장에 가서 그날 오후 5시 반경 그곳 공신사회 앞의 도로 위에서 대중에게 위의 종이 깃발을 휘두르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 피고는 그 소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변명하지만, 구한국으로 병합은 동양의 화근을 끊고, 그 평화를 영원하게 보유하며 민중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이유에서 나와 열국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그런즉 현 제도 아래에 판시 피고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흰전(喧傳)하여 이를 모방하게 할 소위에서 나왔으므로 공공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할 행위를 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국가기록원 판결문, CJA 0000746).

이상동은 일본 경찰에 붙잡혀 압송되는 차 위에서도 “상제(上帝)의 가호로 한국은 순일(旬日, 열흘)을 지나지 않아 독립할 것이고, 지금 (나는) 감옥에 들어가지만 출옥할 날이 가깝다”고 하며 만세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일본 경관의 조사와 취조를 끊임없이 당하였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1983, 173-174). 이 서대문 감옥에서, 나중에 안동지역의 신사참배와 창씨개명을 거부한 독립운동가 이원영(후에 목사)외 3명을 전도하여 개종시켰다. 이원영 목사는 후에 신사참배 반대를 하여 4년여의 옥고를 치루며 항일독립운동을 하여 세상과 교회에 참다운 본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이상동과 함께 그의 가족들이 큰 고초를 겪었다고 그의 아들 이운형은 독립운동을 하여 감옥에서 출옥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1922.12.10. 나(이운형)는 일제의 서대문 형무소에서 10개월 20일의 감형을 받고 가출옥이 되어 세상 구경을 하게 되니, 옛날로 돌아온, 황홀한 정신이 기쁨을 분간하지 못하였다. 소형차로 포항에 가서 원전으로 자동차에 올라 영덕읍까지 자동차를 바꾸어 타고 석양에 영덕군 지품면 원정동 내 집에 도착하니 3년 만에 눈물로 서로 그리워하던 가족을 만나게 될 때 가슴에 가득한 나의 느낌은 입으로 형언할 수 없었다. 그동안에 사랑하는 동생은 10세의 어린 나이에 참혹함을 당하였고, 가군(이상동)은 기미독립운동에 참가하여 안동읍에서 만세 선동을 하심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경성 감옥에 전감되어서 복역하다가 1920년 황태자 혼례식에 석방되었다(영친왕 혼례식 1920.3.18.:필자주). 형님(이형국)도 수개월 동안 영주 경관에게 악형을 당하셨고 동생도 1개월 고생하였다. 이와같이 한 가족이 모두 억울한 악형을 당하니 나의 느낌이 얼마나 깊으랴!(이인화·이덕화, 53).

이상동은 기독교 조사(助事)와 장로 피택자로서 안동지역에서는 최초로, 또 3.1만세운동을 단독으로 시위하였다. 이같이 3·1만세운동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아들 이운형이 일본 법원의 재판에서 심문받는 이야기를 직접 듣고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가군(이상동)은 일본 경찰서에서 관리에게 오히려 호통을 끊임없이 치셨다. 재판소에서도 관리가 심문하기를 군은 누구의 선동으로 만세를 불렀느냐 할 적에 답하기를 “새벽이 되면 못 답이 함께 우나니, 이는 못 답이 스스로 그 때를 알아요, 답이 어찌 선동에 의해서 올겠는가”하여 재판 관리들과 방청하는 인사들이 모두 그 지혜로운 대답을 칭송하였고, 대구에서도 기결되어서 붉은 죄수의 옷을 입히고 복역을 시키려 할 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 하며 고집하고 불복하여 악한 관리들에게 무수한 악형을 당하였고, 철망을 쓰고 수갑을 차고 복역하였다(이인숙·이덕화, 53).

이상동은 그러나 이후 일본 군국주의가 강요한 신사참배(神社參拜)와 창씨개명(創氏改名) 등을 거부하다가 다시 여러 차례 구속되었다(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2023.10.5.)고 하나 이는 다른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상동은 영덕지방의 개신교 조사로 1918년부터 사역하였고 포산동교회와 원전교회가 양교회를 연합한 당회에서 장로 피택을 받았다. 그가 비록 단독으로 만세운동을 하고 먼저 일본 경찰에 구속되었지만, 이상동이 구속된 뒤 영덕 만세 시위에 포산동교회와 연합하고 있는 원전교회에서도 6명의 교인들도 3.1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옥고를 치루고 국가유공자가 된 것은 이상동이 영덕지역 조사였으며, 또 원전교회 장로였기에 이들 교회의 교인들에게 신앙과 독립운동에 크게 영향을 주어서 그들이 직접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는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영덕지역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김세영 원전교회 조사와 원전교회 교우 주명우·윤악이 부부와 김태을·신분금 부부, 정순용 6명이었고, 신조경과 최명술 씨는 같은 영덕지역 남정교회 교인으로 3.1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옥고를 치루었다(강정구, 2019, 80).

유교를 연구한 신학자 이은선은 구한말의 의병운동과 혁신적 유학자들의 관계를 유교 공(公)의 영성과 종교성 관계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혁신 유림들이 때로는 목숨도 내놓으면서 이루고자 한 시대적 뜻(志)과 명(命)을 위한 기제는 인격으로서 인간 본성이며 창조성과 역동적 주재성을 가진 영(靈)과 신(神)의 천(상제)이 결합한 것이라고 보았다. 혁신 유림들은 천하의 대본(大本)을 세우는 일을 중시하고, 이 대본 곧 유교의 리(理)와 의(義)를 세우는 출발로 우리 마음의 천리와 인욕을 엄격히 구별하여, 인간 삶의 공(公/義)을 강조하고, 인욕의 사(私)를 제거하여서 사적 이익을 배격하는 일(至公無私)을 천(天)과 초월(理/性)로 연결하였다. 유학 실학파(호학파)의 정신처럼, 본래적 리(理)와 원칙, 뜻을

중시하는 정신은 한말 외세의 불의한 침략에 저항하면서, 뜻을 관철하는 저항자의 지침이 되어 기독교의 칼 바르트, 본회퍼처럼 나치에 저항하는 정치신학과 궤를 같이 한다(이은선, 2022, 159-160).

이상동에게서 형평(衡平)운동 정신이나 항일 의병운동과 3.1독립운동은 유교 명제인 수신(修身)·제가(齊家)에만 머물지 않고 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라는 대의(大意)를 통하여, 사물의 말단보다 근본을 보며, 근본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도(道)에 가깝다는(大學章句 經文: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 유학의 사상을 내면화하고 여기에 기독교의 신앙과 영성을 결합하여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동이 실천한 치국·평천하의 대의를 기독교 종교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잘 드러내 준다. 예수는 이 땅 가운데 만연한 차별과 갈등, 불의와 폭력을 평화와 연대로 회복시키며 위로와 기쁨의 소리를 선포하였다. 이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유토피아적 세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시대 과제임을 선포한 것이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선언하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19절에 잘 나타난다. 기독교교육학자 정하은은 이 선언을 우리가 옮겨 갈 ‘공간’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로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였다. 현실에서 분노와 분열, 갈등과 차별, 억압과 핍박, 절망과 좌절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통해서 위로와 기쁨, 소망과 희망, 회복과 연대로 변화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표현으로 평화보다는 살롬이라는 표현이 더 적당하다면서 이 살롬은 첫째,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은 불의가 정의로, 폭력이 화해로, 분열이 연대로, 갈등이 환대로 변화됨을 의미한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살롬은 나중에 임하게 될 어떤 추상적인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다. 예수는 “미래적 현재”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함과 동시에 “현재적 미래”로서 지금 이 자리에 벌써 실현되고 있음을 선포한다. 따라서 살롬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 갈등과 분열을 지금 이 자리에서 원래 상태인 살롬으로 회복시키는 역동적인 힘을 갖는다. 셋째, 살롬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롬 14:17). 이는 인간이 오랜 세월을 걸쳐 축적하고 쌓아온 전통이나 규율, 율법이나 종교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의를 행하고 평화를 누리며 기뻐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정하은, 2023, 159).

이은주 기독교교육학자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살롬은 에큐메니칼 운동에 기초한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기독교 정치교육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롬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그들은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그 시대 과제를 극복하기 위

한 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세상의 문제를 교육에 적용하도록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에큐메니칼 운동에 ‘하나님의 선교’ 신학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의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신앙 고백 아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신학적 방향인데, 이에 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교육의 주요한 과업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이은주, 2022, 350).

2) 단순한 말씀 순종

이상동은 1909년 포산동으로 떠나면서 자기 집에서 부리던 노비들의 노비문서를 불살라 노비들을 해방시키고, 자기 소유 몫의 전답들을 팔아 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하여 그 자신은 스스로 가난한 삶을 택하여 살았다. 아들 이운형은 백광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가군(家君, 이상동)은 이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정신에 합당하지 않다 하며, 하인들을 해방시키고 땅을 나누어 주었다. 하인들이 신앙간증을 하며 열정적으로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에게 기회를 주니 저렇게 똑똑한 자들인데 해를 거듭하여 마당 소제만 시켰구나.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농민에게 전도하고 학문을 가르치며 소일하게 되었다. 가난이 심하여 보리죽과 나무껍질로 연명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이인화·이덕화, 38).

노비제도는 1894년 갑오경장 개혁 때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신분질서는 엄존하였고 노비는 여전히 가장 하층민으로 존재하였다. 그리하여 민족운동은 실제적으로 봉건적 신분질서를 타파하는 노비해방과 형평운동을 함께 벌려 나갔다. 따라서 많은 혁신적인 운동가들-김좌진, 류인식, 이희영, 여운형 등-은 노비를 해방시켰으며, 이상동의 형 이상룡도 만주로 망명시에 이 뜻에 동참하여 자기 집의 노비를 해방시켰다. 인간은 본래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인간의 생존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가기에 그 누구도 노비를 거느릴 수 없는 형평정신을 실현한 것이다(박길순, 2009, 184).

이상동은 이같은 노비해방을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깨닫고 받아 들였다. “이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 정신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여 임청각에서 포산동으로 떠날 때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노비에게 나누어 주고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었다. 이상동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즉각적 실천을 하였다. 그는 이같은 즉각적 실천을 새벽 닭의 울음으로 비유하였다. ‘새벽이 되면 닭이 우나니 이는 닭이 스스로 그 때를 앎이라.’ 하였다. 존재 자체가 즉각 깨달음으로 실천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본회퍼는 예수를 따르려는 제자는 ‘단순한

순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수는 자진해서 가난하라는 요구를 하여 부자 청년을 순종, 불순종의 양자 택일의 선택 앞에 세워 놓았다. 레위를 세관에서, 베드로를 배에서 불렀을 때도 예수는 진지하였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서라 하였다. 그의 요구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의지하고 이 말씀을 세상의 어떤 안전성보다도 견고하다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 요구는 단순한 순종이다. 이 순종은 '재물을 팔라'는 요구가 외적 수행이 아니라 오히려 안심하고 그것을 소유하되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하라는 것이다. '마음을 재물에 두지 말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예수의 말씀을 좇는 것은 율법적 순종을 버리고 신앙에 순종하는 것이다. 성서 전체의 골자가 따라오라는 부름이다(본회퍼, 1965, 62).

이상동이 유학자로서 단순한 순종을 실행하게 된 것은 퇴계 유학의 도야이상(陶冶理想)으로 다져진 결과라 할 수 있다. 퇴계의 도야이상은 의리실천 방법으로써 거경궁리(居敬窮理)를 말한다.

'경'(敬)이란 공경이란 뜻인데, 항상 안으로 마음을 끈게하고 밖으로는 의롭게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敬以直內, 義以方外). 그래서 공을 지향하는 도야 주체는 스스로의 마음임을 밝힌다. 수행자가 스스로 마음을 한결같이(主一) 몰두(專一)한다면, 지식위주 공부는 부차적이 되어 도문학(道問學)보다는 존덕성(尊德性)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존덕성의 의리(義理)를 첫 번째 공부로 삼으면 -노력하기를 오래하여 거듭 익히고 밝게 알아서- 한 세상 근원의 묘리(妙理)를 깨닫게 되어 스스로 마음으로 거기에 다가가서 닫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정순목, 1986, 186).

이같이 이상동은 경의 철학을 도야함으로써 늘 깨어, 한결같은 마음을 지니며 자연에 노니는 마음이기에 단순한 마음이 되어 즉각적 실행을 할 수 있었다고 본다.

3. 덕신서숙과 기독교 교사

1) 덕신서숙(德新書塾)의 신식학교 계몽교육

이상동은 덕신서숙을 세워 숙장(교장)으로 교육을 하였다. 덕신서숙은 서당에서 가르치는 한문 이외에 일본어, 산술, 신식학문 등을 교육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초등교육 사립학교다. 1921년부터 1925년까지 이상동은 이 학교를 운영하고, 그 이후는 원전교회 김세영 조사가 후임으로 이어서 이 학교를 운영했다.

가군(家君, 이상동)은 교회 장로 직분을 보시는데 신자 수가 100여 명이요, 교회 경영으로 덕

신서숙(德新書塾)이란 소학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가군(이상동)께서 숙장으로 시무하고, 학생 수가 수십여 명이고 박두영 군이 교수를 하였다(이인숙·이덕화, 53).

덕신서숙은 개량서당이다. 개량서당은 보통 서숙(書塾), 사숙(私塾), 의숙(義塾), 학당(學堂), 학사(學舍) 등으로 이름을 붙여서 재래식 서당이나 일제가 실시한 공립 보통학교의 명칭과 구별하는 신식학교다. 개량서당은 전통 서당과 구분하여 호칭하였는데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재래식 전통 서당은 한문 서당이라고 하고, 또한 개량서당은 공동서당(共同書堂) 또는 리민서당(里民書堂) 등으로 호칭하기도 했다. 신식학교의 책임자를 숙장(塾長), 선생을 숙사(塾師), 교원(敎員), 교사(敎師) 등으로 불렀고, 가르침을 받는 피교육자를 학동(學童), 학생(學生), 생도(生徒), 서생(書生), 접장(接長)이라 불렀다. 1910년대에 이르러 보통교육과 중등교육을 통하여 신교육이 실시되면서 재래의 한문 서당은 점차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전통적인 교육기관인 향교 교육과 서원 교육은 소멸하였으나 사설 교육기관이었던 서숙은 계속 유지하여 일반 대중의 초등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향토문화전자대전, 2023. 10. 5).

1910년대를 전후하여 재래의 서당을 개량하여 근대적 초등교육 기관으로 활용한 보통학교가 개설되었으나 그 통학권을 벗어난 마을에서는 개량서당, 즉 사숙(私塾)을 주민들 스스로 개설하려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는 초등교육 기관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당을 정규 초등교육 기관에 준할 수 있도록, 학교의 성격, 교육 내용,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나온 것이다. 그런데 특별한 점은 그 당시 안동의 경안노회는 노회 소속회의 사업으로 학무부서를 통해 매년 신식교육 상황 보고를 받고 기독교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는 이 신식교육을 노회가 아주 중요시 여겨서 실행했다는 것이다. 당시 노회 기록은 <표 2>와 같다.

<표 2> 경안노회 기록

연 도	신식 학교 형편
1922. 6. (경안노회 제2회)	남편시찰 :학교 형편으로 크게 왕성하여 교회마다 거의 다 있사오며, 영덕시찰: 학교형편 7처 학교를 신설, 학생수 300명이 오며, 북편시찰: 학당형편, 남녀 서숙과 학술강습회가 있사오며 교실이 협착하여 새로 건축한 곳도 있사오며, 안례시찰: 학교 형편, 남녀 학교가 10개소이며, 남학생 126명, 여학생 114명으로 공부하는 중에 있사오며, 재정이 곤란으로 근근부지하오며 * 특별사건: 도산면 섬촌에서는 퇴계 선생 문중과 종회와 향회로 예배당 파괴키로 하였사오나
1923.1. (경안노회 제3회)	학무부 보고: 본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학교 선생과 각 서당과 각 강습소 선생들 에게 학교관리법과 교수법과 기타 필요한 학과를 하계 방학 시기를 이용하여 강습

1924.1. (경안노회 제5회)	학교형편:남녀 서숙이 있어오며, 각 교회 내에서 서당급학교 강습회에서 성경을 교수키로 하였습니다.
1924.5. (경안노회 제6회)	영덕시찰: 학교형편, 화천교회 학교와 낙평교회 학교와 원전교회 (덕신서숙 설치 교회) 학교는 재정 곤란으로 근근히 지내오며 다른 학교는 재정 곤란으로 폐지하여 싸오며
1925.1. (경안노회 제7회)	학무부 보고: 교회 내에 있는 서숙이나 강습회에서 성경을 교수치 않는 곳은 반드시 성경과목을 넣어 교수키로
1925.6. (경안노회 제8회)	학무부 보고: 영덕시찰, 학교형편: 근천, 원전 양 학교는 재정 곤란으로 근근히 유지 하며, 낙평학교는 재정이 극난하여 구세군학교와 합하였사오며
1926. 6. (경안노회 제10회)	학무부 보고: 교회 내에 있는 서숙이나 강습회에서 성경을 교수치 않는 곳은 다시 성경교수케 하기로, 서숙이나 강습회 폐지된 곳도 있사오며, 경안학원도 폐지. : 덕신학원 (원전동 교장 김세영, 교원1명, 보통과 학생 12명 재정 만원)

안동지역 교회에 신식 사립학교를 교회의 사업으로 운영한 것은 그 당시 정재학과 계열의 혁신 유림들이 계몽운동에 힘쓴 바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영남 정재학파의 혁신 유림인 류인식은 특히 안동 지방에 사립학교를 많이 세워 신식 교육을 크게 발흥시켰다. 류인식은 신교육이 잘 운영되어 만족한 상황을 만주에 있는 이원일 동료에게 “안동 지방의 교육열이 크게 높아져 7개의 공립학교와 사립 강습소가 40여 개소나 생겨났다. 학생 수는 4, 5천명 이상이며, 시골의 학당에서도 옛글을 배우는 곳은 없다. 대지의 사조가 마침내 반드시 흘러넘치고 있다”라고 전하였다. 그의 주선으로 안동 일대 민간 사립학교 36개 학교가 연합운동을 개최할 만큼 안동의 신교육열이 높았다고 한다. 류인식은 1920년대 초 안동의 교육운동에 힘쓰고 있는 사실을 [개벽] 제15호(1921.9.)를 통해 전국에 소개하였다(류인식, 2009, 187).

신교육이 활성화된 것은 신(新)문명의 빛과 함께 기독교(개신교)가 대중에게 다가오자, 그 빛의 눈부심에 매료되어 기독교에 호감을 갖고 교회 다니며 성경을 읽고 배우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교인들 다수가 기독교를 신문명으로 이해하면서 안동지역 마을에서는 기독교도들을 미학도(美學道)라 칭하기도 하였고,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문명으로 서양문물을 가르치는 신식학교에도 관심을 가졌다. 임희국은 ‘교회 곁에 학교설립’은 기독교 전통에서 칼뱅 개혁교회의 유산이기도 하기에 선교사나 토착 교인이 설립한 신식학교의 정체성은 분명히 기독교학교였다고 한다(임희국, 2013, 13).

경안노회 산하 지역의 교회들이 설립 운영한 학교들은 노회록 기록을 종합하면, 영덕 지

품면에 중평학원, 덕신학원, 영덕 병곡에 보명학원, 축산면에 영신학원, 영주읍에 강명여숙, 평은면에 경신여숙, 내명학교, 풍기면에 영신강습소, 이산면에 용상강습처, 문수면에 영유강습회, 봉화 법전에 명동서숙, 상운면에 신성서숙, 협유서숙, 안동군 녹전면에 신명서숙, 룡명서숙, 임북면에 대동서숙, 녹전면에 보성강습회, 북면에 동화학원, 와룡면에 영흥강습소 등이 있었다. 이들 학교의 교과 내용은 조선어, 일어, 산수, 성경, 한문, 습자, 도화, 글씨(받아쓰기), 작문, 음악 등 이었으며 2~3명의 교사가 분담하여 지도하였다(안동교회, 1989, 158).

이상동 장로가 속장으로 운영한 덕신서숙의 신식학교에서 성경을 교수하는냐 하는 문제가 특별사건이 되어 경안노회에 보고되기도 하였다. “덕신학교에서 신·불신으로 분쟁이 나서 불신자가 기도회와 예배를 보지 아니하려고 따로 학교를 설립하였다”(경안노회 제4회). 분명한 것은 덕신서숙이 안동 지역의 협동학교나 보문의숙, 동화서숙, 봉양서숙과 같은 중등, 고등 과정의 신교육기관에 비추어 열악하였겠지만, 이상동은 교회가 주체가 되어 일반 서민들의 의식을 계몽시키고자 하는 뜻을 세우고, 신식 학교를 통해 기독교 교육을 감당하고자 한 것은 전향적인 판단이며 실행이라 할 수 있다.

2) 교육 촉진자로서 카테케시스 교사

이상동은 웨스터호프의 기독교 교육 정의로 표현하면 카테케시스 촉진자로서 교사 구실을 하였다. 카테케시스 교사는 공동체와 세상 안에서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초점을 두고 교육한다. 이 교육은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고자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통과 의례로써 세례를 출발점으로 하여 성숙한 기독교인이 될 때까지 회심과 양육을 거쳐 발전하여 나아갈 때에, 이때 일어나는 회심이란 우리의 의식과 행위와 태도를 계속적으로 평생에 걸쳐 바꾸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교사는 사람들을 기독교 전통에 소개하거나 기독교 신앙공동체로 이끌어 내어 문화화시키는 구실을 한다. 이같이 개인적·공동적 생활에서 성서의 계시를 자신들의 삶 속으로 내면화시키고 삶을 통해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전반적인 목회활동의 과정에 속한다(강은연, 1984, 68).

이상동은 조사로, 또 장로로 교회 목회하는 일에 일생 봉사하였다. 그는 1917년 9월 19일 경북노회에서 조사로 임명받았고, 다음 <표 3>과 같이 봉사하였다.

〈표 3〉 조사로서 활동

조 사	교역 지역	사 료
이상동	1917년 9월 19일 경북노회에서 조사로 임명받음	경북노회 제2회 (1918.)
이상동	시년에 조사 피임자는 이상동 제군이였다. 영덕지방 8개처, 교회 담당, 월봉 10원.	경북노회 제3회(1918.1.)
이상동	안동지방 이상동, 김세영 양 씨에게 월급이 부족하나 산곡교회 인고로 형편을 따라 1년만 허락키로 작정 이며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하) (1918.1.), 211.
이상동	이상동 월봉 15원 이상되도록 권면	경북노회 제4회(1918.6.)
장로 피택(1918.하반기 추정)과 임직으로 1925년까지 조사 봉사를 중지하였다가 1925년 이후 다시 조사로 봉사하였다.		
이상동	영동, 계동, 발리, 주곡, 오리현 교회 담당 (경안노회 언권위원 허락받음)	경안노회제9회(1926.1.)
이상동	계곡, 주곡, 오리현,나당동,발리 5개처 사역.월180원	경안노회제11회(1926.12.)
이상동	감연,광덕,원전,지소,월막,오대,하리,리전평,로래교회 10개처 (169원, 6개월)	경안노회 제12회(1927.6.)
이상동	영양군:영동,계동,발리,주곡,오리현,내당동	경안노회제11회,12회통계표

또 이상동은 또 장로로서 다음 〈표4〉와 같이 봉사하였다

〈표 4〉 장로로서 활동

년도	노회 기록	내 용
1918.12.	경북노회 제5회	포산과 원전 두 교회 합하고 장로 1인 택할 것과 이상동 피택되 면 공부 허락
1921. 1.	경북노회 제9회	포산, 원전 당회 이상동 장로 피택되었으니 본 시찰위원의 맞거 문답과 장립까지 허락, 이상동 영수라 칭함 (1921.상반기(1월~ 5월)에 임직한 것으로 추정)
1921. 6.	경북노회 제10회	장로 임직:포산,원전 양 교회 합치고, 이후 이상동 장로 장립을 보고함. 이상동 장로 처음 총대.
1921.12.	경안노회 조직노회	(경안노회) 분립위원 장로로 활동 시작
1921.12. ~1923.6.	경안노회 제1회 ~ 제4회	경안노회 장로 총대(포산.원전교회 파송)로 시무
1923. 6.	경안노회 제4회	포산교회 내 문제로 노회에 서신 청원 건 접수

1924. 5.	경안노회 제7회	(원전, 포산)총대 장로로 마지막 활동. 1925.1.이전 광덕마을로 이사
1932.		안동동부교회 설립시 교인 100여 명과 함께 이적하고 신세(동부)교회 시무장로가 되다
1933.12.	경안노회 제24회	이상동 신세교회 장로 위임
1934. 6.	경안노회 제25회	이상동 장로 총대 마지막 기록

3) 일치와 연합 활동-교회와 마을 섬기기

이상동은 이미 1910년 포산동 교회를 설립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을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을 위해 농업개발에 힘쓰면서 성서연구에 매진하였다. 이후 마을 사람의 호응이 좋아지면서 신자들도 그 좁은 지역에 많이 늘어나 70여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교인 수가 늘어나 1919년에는 예배당을 신축하게 되었다. 이상동은 아들 이운형이 1920년대 중반에 한국 교회 처음으로 면려회를 조직하고 안동면려청년회장, 안동유치원 교사 등을 역임하고 사회운동을 전개하여 교회와 마을 섬기는 연합 활동에 적극 활동하도록 아들을 응원하였다(안동교회, 1989, 156).

이같이 이상동은 조사와 장로로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더하여 교회 연합과 일치의 정신으로 출옥 후 섬촌교회 설립에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 그는 1921년 6월경 퇴계의 고향이며 도산서원이 있는 예안면 원촌에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발상을 하였다. 그는 평양 부인전도회가 안동에 파송하는 전도인의 자격으로 이 부인전도회와 함께 예안면 원촌을 중심으로 1921년 6월 한 달 동안 전도하였으나 전도의 결실은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실망치 않고 원촌은 아니지만 가까운 섬촌마을을 순회하며 집중으로 전도하였다. 그래서 그는 섬촌마을의 섬계서숙에 기도실을 마련하였다가 퇴계 가문인 진성이씨 문중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은 섬촌의 이맹호의 집에서 교회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이 일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전도한 신앙의 동지들(이원영, 이중무, 이운호, 이맹호)과 섬촌 노동야학의 학생들도 연합하여 1922년 3월에 섬촌교회를 세웠다(임희국의, 2022, 192).

이상동이 조사, 전도자로서 열정을 다해 활동하던 모습을 이운형은 백광일기에서 “부자(富者)가 쌀가루를 등에 미고 짚신 차림으로 영덕, 영양, 청송, 하회, 풍천 등 인근 10여 동네를 도보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이를 목격한 동네 사람들이 30여대를 이은 900년 유림의 아흔 아홉칸 임청각에 서양귀신이 들어와 모두들 머리들이 어떻게 되었고 수군거렸다”(이인숙·이덕화, 15). 개신교 초기 조사들은 선교사들의 길 안내를 맡기도 했고 때로는 설교도 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세례자 교육을 담당하기도 했다. 조사나 권서

의 특징은 여러 지역과 교회를 순회하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넓은 지역을 돌아다녔다.

이상동은 또 현 안동동부교회인 당시 신세교회를 설립하는데 주도적인 구실을 하였다. 현 안동교회 당시 법상동교회에서 교인 100여명과 이상동 장로가 연합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교회 설립하기 위하여, 분열이 아닌 분립 개척에 앞장섰다. 신세교회 설립시 사용한 부지 100평도 고성이씨 이상동 문중의 소유지로 현재 안동시 원불당 자리에 제공하여 교회를 설립하도록 이상동 장로가 헌납했다고 한다(안동동부교회70년사, 2002, 186).

이상동은 덕신서숙을 운영하며 아들 이운형과 함께 이 학교와 이웃의 교회학교들과 연합 활동과 일치 활동도 함께 펼쳐 갔다.

나(이운형)도 때때로 나가 도와주며(덕신서숙 교사로 1921.9.~1922. 10. 근무: 필자주) 여름 휴가를 이용하여 학생 모집과 전도강연을 할 때, 학생들에게 연설을 가르쳐서 순회 연설을 하는데 지방 사람들의 열광적 환영을 받고 가을학기 개학시에는 학생 60여명을 모집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영양 석보의 화매학교, 영덕의 낙평 교회학교와 같이 먹방학교, 신양학원을 청하여 덕신서숙과 연합하여 본동(주:덕신서숙) 야원(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그 지방에서 처음있는 성황으로 박수갈채의 환호 속에 폐회하니, 다시 새 기운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나를 교사로 칭빙하기를 갈망하였다(이인숙·이덕화, 53).

이상동은 이같이 포산동·원전동 마을공동체와 덕신서숙 학교공동체를 연계하는데 힘썼다. 강영택 기독교교육학자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학교공동체와 마을공동체의 연계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 연계방식은 결합 정도에 따라 느슨한 연계부터 강력한 형태의 연계까지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세 가지 방식을 볼 수 있다. 첫째는 학교와 마을이 별도로 존재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바를 상대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하는 상호활용의 연계방식이다. 둘째는 양자의 연계가 보다 체계화되어 서로 간에 소통과 협력이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파트너십 연계 방식이다. 셋째는 학교와 마을이 각자의 고유 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가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 하나의 새 융합체를 이루게 되는 유기적 협력관계 방식이다. 이 단계가 학교와 마을의 결합 정도가 가장 강력한 경우다. 그러나 결합이 강하다고 해서 양자가 가지고 있던 각자의 고유한 속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양자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해서 각자의 속성이 더욱 분명해질 수 있다고 한다(강영택, 2021, 145). 덕신서숙 학교공동체와 포산·원전 마을공동체는 고유 속성을 유지하는 유기적 관계 속에 ‘코이노니아’를 잘 이루었음을 위의 이운형의 사례로써 알 수 있다. 마을 공동체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에큐메니칼 신학에서 새로운 초점으로 강조하여 부각하는 것은 제한된 의미의 전통적인 교회론 개념을 넘어서서 총체적인 새로운 교회론으로 마을 공동체를 강조하게 되었다(안광덕, 1995, 56).

이같이 이상동은 덕신서숙으로 마을 안에서 신교육을 실시함으로 계몽교육을 실천하는 것은 백성들을 교육하는 일을 성서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백성을 주권자로 세우는 코이노니아 교육에 힘쓴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옥장흠 기독교교육학자는 현대에서도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대 시민교육의 목표를 “가치와 규범을 습득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회정의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목표는 첫째,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민주 시민의 가치와 규범을 습득하고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도덕의 공감 능력과 사회를 향한 교회의 구실을 회복하도록 한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정의·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주인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넷째, 그리스도의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이 일에 헌신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옥장흠, 2023, 14).

이상동은 위와 같이 덕신서숙을 통한 교육에 서민들의 계몽교육과 초기 개신교 조사와 장로로서 목회자의 구실을 감당하여 카테케시스 교사로서 교육을 촉진하는 기능을 행하였다. 특히 섬촌교회와 안동동부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개별적인 자기 개인이나 가족 중심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이웃 교회나 이웃 학교들과 연합하고 일치하는 정신으로 적극 나서서 코이노니아를 이룸으로 개인과 그룹들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였다.

IV. 나가는 말

한국 개신교 초기 선교에서 안동지역의 유교 문화에 있는 자들이 기독교 문화와 영성을 만나면 어떠한 삶이 나올까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초점이었다. 그래서 안동의 명문 유교 집안 이상룡 가문에서 첫 개신교 회심자인 이상동의 생애와 삶의 양식을 통해 유교와 개신교가 만나면 무엇을 보여 주는지를 웨스터호프의 신앙공동체 교육론으로 살펴보았다.

이상동 장로의 생애와 삶의 양식을 통해 보여주는 기독교교육적 함의는 첫째, 성서를 주체적으로 읽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앙 양육과 인격 형성에 설교, 예배, 교리 전도, 훈련, 봉사, 친교 등 여러 교회 생활과 교육이 소용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아주 분명한 것은 말씀 자체를 직접 접하여 스스로 읽고 깨닫는 과정이 아주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이상동의 첫 복음 대면에서 알 수 있다.

둘째, 교회는 신앙공동체 성격을 바로 살려야 한다는 점이다. 이상동이 보여준 삶의 양식은 가정 먼저 포산동교회 설립으로 시작한 순교 신앙공동체 생활이었다. 이 신앙공동체 교

회를 설립하기 전에는 다른 교회를 소속하거나 다닌 경험이 없는 가운데서 그의 첫 교회상은 가톨릭의 순교 성자인 머루성지의 순교 공동체의 정신과 영을 이어받은 공동체 생활에 뜻을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한 정신으로 그 후 이원영 목사와 함께 예안면 섬촌교회 개척이나 신세교회 분립 등에서도 교회가 이 공동체성을 세우는 정신을 살리려고 애를 쓰며 개척하고 분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신앙공동체의 교회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포산동교회도 나중에 떠나게 되고, 또 신세교회 분립에서는 그러한 교회의 뜻이 분명치 않을 시는 오래지 않아 교회를 떠난 것을 해당 교회 연혁에서 읽을 수 있었다. 교회설립과 개척에만 집중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셋째, 기독교 신앙은 천하에 평화를 이루고, 인간 평등을 구하는 세계관과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상동은 안동 3.1만세운동에 단독으로 나서서 민족독립을 부르짖고, 노비해방의 형평운동을 몸소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 교육과 삶이 이웃 사랑에서 드러나게 보여 주었다. 신앙생활은 개인이나 가정에 한정되지 않고 공공의 옳은 일(義, 理)을 우선 행하는 실천을 보여 주었다.

넷째, 기독교교육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동은 덕신서숙의 신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교사로서 카테케시스 구실을 충실히 감당했다. 또 조사, 장로로서 일반인들을 계몽시키고 교육하는 교사로서 사명도 충실히 감당하였다.

이상과 같은 기독교교육의 함의를 따라 오늘의 한국교회의 기독교교육을 견주어 보고 제안한다면 먼저, 성경 읽기와 직접 대하기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교육이 학교식 시스템과 프로그램 활동이 너무 많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직접 대하는 기회를 소홀히 한다는 점이다. 물론 통독, 암기, 쓰기 등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교사나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 없이도 스스로 성경을 읽고 깨닫는 기회를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도, 특히 청소년도 신앙의 초보자도 직접 성경을 직면함으로써 하나님과 마주 서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회가 학교나 회사가 되기보다는 삶의 공동체성을 이루도록 변화시켜 가야 할 것이다. 생명보험을 선전하여 번창하고 조직적으로 발전하는 사업체식 교회보다는 삶의 애환과 어려움을 나누는 공동체, 웨스트호프가 제시하는 소규모 300여명의 모임에서 교인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한다면 지나치게 성장주의 치달아 자본의 위력에 잠식당하는 교회를 벗어나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신앙의 공공성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성장 발전을 위하여 개인 번영과 현세 구복에 복음을 제한시킬 때가 많았다. 이제 복음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여 공공영역에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평화와 창조 질서, 기후정의 등 천하에 덕을 끼치는 복음의 통전성을 살리는 일을 교회가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교회가 공식적인 교육 조직과 기관에 너무 기대지 말고 비공식 잠재적 교육활동을

크게 신장하고 장려하여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교육 지속해 가야 한다. 다양한 문화와 취미 그룹, 연령별 그룹이나 관심 영역을 찾아서 그 그룹 성격에 맞는 의도적인 커리큘럼을 가지면서도 없는 듯이 있는 잠재적 교과과정을 교회가 찾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더 나아가 신입 교우에게 개인 인생에 목적과 비전을 주고 사회와 민족에게 삶의 가치와 뜻을 심어 주는 교육 내용이 교회를 통하여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동은 믿음으로 성서의 세계관을 받아 가지고 안동의 양반 가문과 유학 중심의 풍토에서 이상동으로 인한 기독교인의 삶의 양식으로 문화를 이루는 교회나 단체가 있어서 이를 계승하고 후대나 후진에게 전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 크게 아쉽다. 그러나 초기 유학자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그의 생애와 삶의 양식에서 분명히 보여 준 것에 지역 교회와 기독교인은 선명히 주목하고 있다. 안동지역 교회들은 이를 잘 기억하여 지역 교회와 노회 역사 인물에서 그의 업적을 기리는 연구 작업과 학술 발표회도 가져서 그의 삶의 양식을 되새기고 있다. 또 석주 이상룡기념사업회에서도 이상룡과 이상동 그의 가문의 독립운동의 헌신을 매년 기려 크게 행사하고 있으며, 포산동 지역 마을 주민들이 그를 기리는 이상동 생가(교회) 복원운동을 펼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강영택. (2021). 마을교육공동체로서의 오산학교와 명동학교. **기독교교육논총**, 68, 141-173.
- [Kang, Y.T. (2021). Osan school and myeongdong school as village education communitie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68, 141-173.]
- 강은연. (1984). J.H.Westerhoff의 기독교교육론의 비판적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 [Kang, E.Y. (1984). A critical study of J.H.Westerhoff's Christian education theory. Unpublished M.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 강정구. (2019). 경북 북부지역의 3.1만세운동:기독교여성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723, 76-89.
- [Kang, J.G. (2019).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northern part of kyeongbuk: Focused on Christian women. *Christian Thought*, 723, 76-89.]
- 경북노회 제2회록. 1917. 9.
- [Gyeongbuk Presbytery 2nd session. 1917. 9.]
- 경안노회 제1회와 조직노회. 1921. 12.
- [The first Gyeongan Presbytery and its organized presbytery were established on December, 1921.]
- 고재길. (2013). 본회퍼의 나를 따르라에 나타난 제자의 윤리. **장신논단**, 45, 118-142.
- [Go, J.G. (2013). Disciple ethics in Bonhoeffer's follow me. *Jangsinnondan*, 45, 118-142.]
- 국가기록원 판결문(이상동 판결문). CJA 0000746.
- [National Archives of Korea decision (Lee Sang-dong decision). CJA 0000746.]
- 굿뉴스안동성지. (2016.1.1.). https://maria.catholic.or.kr/sa_ho/list/view.asp?menugubun=holyplace&ctxtOrgNum=2343
3 추출:2023.10.10.)
- [Good News Andong Saintarea. (2016.1.1.).]
- 권상우. (2016). 안동지역에서 유학과 기독교의 만남. **동서인문학**, 51. 계명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 [Kwon, S.G. (2016). Encounter between confucianism and Christianity in the andong region. *East-West Humanities*, 51. Keimyung University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 김광현. (1997). 유학의 고장에 기독교가 성한 까닭은 무엇인가?. 임재해 편. **안동문화의 수수께끼**. 서울: 지식산업사.
- [Kim, G.H. (1997). Why did Christianity prosper in the home of confucianism? ed. Im, J.H. *The mystery of Andong culture*. Seoul: Knowledge Industry Company.]
- 김민호. (2023). 회심 및 성화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영성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교육논총**, 76, 237-258.
- [Kim, M.H. (2023). The impact of conversion and sanctification-centered educational programs on the spirituality of youth.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76, 237-258.]
- 김희곤. (2001). **신돌석:백년만의 귀향**. 서울: 푸른역사.
- [Kim, H.G. (2001). Shin Dol-seok: homecoming after 100 years. Seoul: Blue History.]
- 김희곤. (2015). 범흥마을 사람들이 펼친 독립운동. 안동학술강연집.
- [Kim, H.G. (2015). The independence movement carried out by the people of beopheung village. Andong Academic Lecture Collection.]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독립운동사3**. 3.1운동사(하).
- [Committee on the Histor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1983). Histor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3. *History of the March 1st Movement (Part 2)*.]
- 박결순. (2009). **류인식**. 파주: 지식산업사.

- [Park, G.S. (2009). *Ryu in-sik*. Paju: Knowledge Industry Company.]
- 배홍직. (1975). **봉경 이원영 목사**. 서울: 보이스사.
- [Bae, H.G. (1975). *Pastor wonyoung lee of bonggyeong*. Seoul: VoicePress.]
- 아브라함. (2014.1.17.). 로마 카타콤베의 역사, 수원신학원. http://www.suwonts.org/bbs/board.php?bo_table=board6_3&wr_id=694.(추출일:2023. 10.10.)
- [Abraham. (Jan. 17, 2014). History of the roman catacombs, Suwon Theological Seminary.]
- 안광덕. (1995). 코이노니아 기초한 공동체 교육.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 [Ahn, G.D. (1995). Koinonia-based community education. Unpublished M. Dissertation. Presbyterian Theologic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 안동교회. (1989). **안동교회 80년사**. 안동:안동교회출판부.
- [Andong Church. (1989). *Andong church's 80-year history*. Andong: AndongChurch Press.]
- 안동동부교회. (2002). **안동동부교회 70년사**. 안동:동부교회 편집위원회.
- [Andong Eastern Church.(2002). *Andong eastern church's 70-year history*. Andong: Eastern Church Editorial Committee.]
-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08). **석주유고**. 안동: 경인문화사
- [Andong Independence Movement Memorial Hall.(ed.). (2008). *Seokju yugo*. Andong: Gyeongin Munhwasa.]
- 옥장흠. (2023). 기후위기 시대에 기독교교육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적용 방안. **기독교교육논총**, 74, 7-31.
- [Ok, J.H. (2023). How to apply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o Christian education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74, 7-31.]
- 이만열. (2023). 초기 한국기독교의 성경기독교적 성격. **산림고물건너**, 10. 열린서원. 87-94.
- [Lee, M.Y. (2023). Biblical Christian characteristics of early Korean Christianity. *Crossing Mountains and Waters*, 10. Opentemple. 87-94.]
- 이은선. (2023). **한국페미니스트 신학자의 유교 읽기**. 서울: 모시는 사람들.
- [Lee, E.S. (2023). *A Korean feminist theologian's reading of confucianism*. Seoul: Peoplewhoserve press.]
- 이은주. (2022). 에큐메니칼 운동에 기초한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기독교 정치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72, 341-366.
- [Lee, E.J. (2022). The direction of Christian political education for social responsibility based on the ecumenical movement.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72, 341-366.]
- 이인화·이덕화 편. (2006). **백광일기**.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 [Lee, I.H.& Lee,D.H. (ed.). (2006). *Baekgwang diary*. Seoul: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press.]
- 임희국 외. (2022). **봉경 이원영**. 서울:은행나무.
- [Lim, H.G. et al. (2022). *Bonggyeong lee won-young*. Seoul: Ginkgo Tree.]
- 임희국. (2008). **선비 목회자 봉경 이원영 연구**. 경북: P&P.
- [Lim, H.G. (2008). *A study on seonbi pastor bonggyeong Lee Won-yeong*. Gyeongbuk: P&P.]
- 임희국. (2016). 기독교학교 및 신학교(20세기 초반)의 설립역사에 대한 이해.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기독교사연수 자료집.
- [Lim, H.G. (2016).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establishment of Christian schools and new schools (early 20th century). Korea Christian Schools Association Christian History Training Material Book.]
- 장신근. (2022). 20세기 후반 실천신학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 대한 비판적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72, 25-48.
- [Jang, S.G. (2022). Critical study of three types of practical theology in the late 20th century research.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72, 25-48.]
- 정순목. (1986). **퇴계의 교육철학**. 서울:지식산업사.
- [Jeong, S.M. (1986). *Toegye's educational philosophy*. Seoul: Knowledge Industry Company.]

- 정하은. (2023). 갈등사회의 살림을 위한 신앙공동체 교육: ABCD, A.I 4D, 대화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75, 153-170.
- [Jeong, H.E. (2023). Faith community education for shalom in a conflict society: Focusing on ABCD, A.I 4D, and dialogu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75, 153-170.]
-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상).
[Histo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above).]
-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이상동. (추출일:2023.10.5.)
[Comprehensive system of Korean historical figures. Lee Sang-dong.]
- 함석헌. (1974). **뜻으로 본 한국역사**. 서울: 제일출판사.
[Ham, S.H. (1974). *Korean history seen through meaning*. Seoul: Jeil Publishing.]
- 함석헌. (2023). **뜻으로 본 인류역사**. 서울: 씨을출판문화원.
[Ham, S.H. (2023). *Human history seen through meaning*. Seoul: CJ Publishing Culture Center.]
- 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seogwipo/toc/GC04601404>. 개량서당.(추출:2023. 10.10)
[Local Culture Electronic Exhibition.]
- 허은. (1995). **아직도 내귀엔 서간도의 바람소리가**. 서울: 정우사.
[Heo, E. (1995). *The sound of the west jian dao wind still rings in my ears*. Seoul: Jeongwoosa.]
- Bonheffer, D. (1994).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원저1958 출판)
[Bonheffer, D. (1994). *Gemmisame leben*. Translated by Moon, I.W. Seoul: Korean Christian Book Association.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58.)]
- Driver, J. (2010).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본 전쟁과 평화**. 이상규 역. 춘천: 아나뱃티스트출판사.
[Driver, J. (2010). *How christians made peace with war*. Trans. by Lee, S.G. Chuncheon: Korea Anabaptist Publishing House.(Original work published data unknown)]
- Kreider, A. (2019). **초기 기독교의 예배와 복음전도** 허현 역. 충남: 대장간. (원저 1915 출판)
[Kreider, A. (2019). *Worship and Evangelism in pre-christendom*. Trans. by Heo, H. Chungnam: Blacksmith presses.(Original work published in 1915)]
- Mack, B. L. (1999). **잃어버린 복음서: Q 복음과 기독교의 기원**. 김덕순 역. 서울:한국기독교연구소. (원저 1993 출판)
[Mack, B. L. (1993) *The lost gospel: The book of q & Christian origin*. Trans. by Kim, D.S. NewYork: Harper SanFrancisco.(Original work published in 1993)]
- Westerhoff III, J. H.(1970). *Values for tomorrow's children*. Philadelphia: PilgrimPress.
- Westerhoff III, J. H. (1975). *Learning through liturgy*. NewYork :The Seabury Press.
- Westerhoff III, J. H. (1976). *Tommorrow's Church*. Texas: Word Books.
- Westerhoff III, J. H. (1978). **기독교교육논총**. 김재은 역. 서울: 기독교출판사. (원저 1972 출판)
[Westerhoff, J. H. (ed.). (1978). *A colloquy on Christian education*. Trans. by Kim, J.Y. New York : Pilgrim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72)]
- Westerhoff III, J. H. (1979). *Inner Groth Outer Change*. NewYork: The Seabury Press.
- Westerhoff III, J. H. (1983). **교회와 신앙교육**. 정용섭 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원저 1976 출판)
[Westerhoff III, J. H. (1983).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Trans. by Jung, Y.S. New York:Seabury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in 1976)]